

클래식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KBS 교향악단 참여 여수음악제
7일까지 예율마루·김대중강당 등
개막공연 '정명훈 오르간 심포니'
손민수 '초절기교' 특별연주회도



(왼쪽부터) 정명훈, 벤자민 그로브너, 신동일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6회 여수음악제가 2일 GS칼텍스 예율마루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7일까지 예율마루, 여수시청 문화홀,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 등에서 펼쳐진다.

2일 오후 7시30분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공연 '정명훈의 오르간 심포니' 무대는 세계적인 지휘자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봉을 잡고 영국이 자랑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벤자민 그로브너가 협연자로 나선다.

소풍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단조 작품 11과 생상스의 교향곡 제3번 C단조 작품 78 '오르간'을 선보인다. 오르간은 신동일이 맡는다.

3일 오후 5시 예율마루 대극장에서는 피아니스트 손민수 '초절기교' 무대가 펼쳐진다. 손민수가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을 들려준다.

4일 오후 5시 예율마루 대극장에서는 드라마 속 클래식을 만날 수 있다.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중 비제와 카르멘 환상곡,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중 형을 위한 노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중 무이이야 등의 익숙한 선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플루트는 필립 윌트, 바이올린은 크리스티안 김, 피아노는 박영성이 맡고 북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KBS교향악단 체임버연주회는 기타리스트 박규희(3일 오후 7시30분 예율마루 소극장), 하모니시스트 박종성(3일 오후 2시 예율마루 소극장),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4일 오후 7시30분)와 함께하는 특별연주회도 마련했다.

7일 오후 7시30분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는 폐막연주회 여섯번째 '결실'은 니콜라스 네겔레가 지휘를 맡고 바딤 글루즈만 바이올린 협연한다. 제6회 여수음악제 음악학교 수료생

들도 참여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29명이 KBS교향악단과 협연을 펼쳐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공연을 위해 청소년들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음악학교에 참여해 KBS교향악단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과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216,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64를 들려준다.

이와 함께 횡간도, 관기초등학교, 여수문화홀,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정돼 있다.

음악제 티켓은 예율마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R석 5만 원, S석 3만 원, 청소년 1만 원이며, 예율마루 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

대학생 창작뮤지컬 '청춘일기' 4일 ACC 예술극장 극장2

대학생 창작뮤지컬 '청춘일기'가 오는 4일 오후 3시와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른다.

'청춘일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이 공연에 대한 꿈을 꾸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뮤지컬 배우로의 성장을 돕는 KT&G 상상유니브 '유나-브로드웨이' 프로젝트다.

ACC재단은 지역 청년들의 창작 기회 및 무대 제공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KT&G 상상유니브와 협업, 지역 대학생들이 만든 '그리스', '맘마미아' 등 총 6편의 작품을 ACC 무대에 올렸다.

올해 선보이는 창작뮤지컬 '청춘일기'는 대학생의 다양한 사연을 시나리오화 한 작품으로 연애, 우정, 군대 등 현 시대 청년의 감성과 소소한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권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www.sangsanguniv.com)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르는 대학생 창작뮤지컬 '청춘일기'.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청년 문화 예술인 육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ACC재단은 지역 및 각급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국악방송, 메타버스 사업 본격 추진

아이메타버스 플랫폼 런칭
국악계 최고소리꾼 총출동

국악방송이 메타버스 사업 및 NFT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일 국악방송에 따르면 새롭게 런칭되는 아이메타버스(iMETAverse) 플랫폼 내 국악방송 랜드는 시공간을 초월해 국악을 즐길 수 있다. 유저들은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메타버스를 통해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이메타버스 플랫폼은 9월 중 본격적으로 랜드 판매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국악방송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담은 NFT 프로젝트 '혼(HON,魂)'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 세계관을 활용해 웹툰, 공연 등 다른 예술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판 히어로 세계관을 담은 NFT 프

젝트 '혼'은 오는 11월 발매될 예정이다.

국악방송 메타버스 사업에는 국악계 대표 소리꾼이 총출동한다.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와 국악계 대표 스타 박애리를 비롯, 김주리, 서진실, 유태평양 등이 대거 참여한다. 이외에도 김설진, 팝핀현준 등 국악과의 콜라보레이션이 기대되는 아티스트도 참여해 더욱 다채로운 색을 더할 예정이다.

국악방송 관계자는 "메타버스 사업은 넓은 범위의 'K-MUSIC'을 세계화해 국악방송과 한국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NFT 판매 수익 대부분은 국악인에게 돌아가는 등 코로나19로 공연이 줄어든 시기에 국악인들이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악방송의 메타버스 사업은 국악방송 홈페이지(www.igbf.kr) 및 NFT프로젝트 '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metacoins)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진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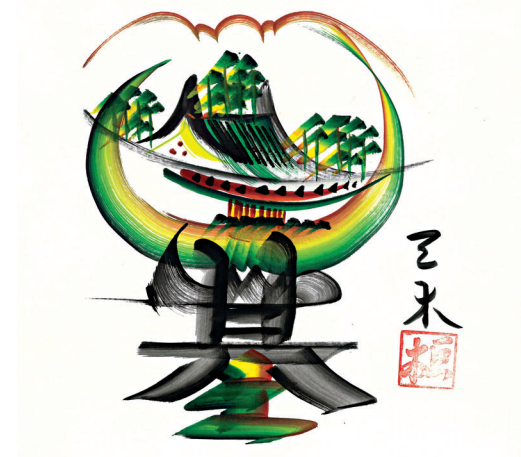
은암미술관, 25일까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은암미술관은 1일부터 25일까지 계림장작공간에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일부터 3일까지는 전통 혁필화 작가인 거목 김만석을 초대해 '혁필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혁필화'는 가족이나 절친 전에 여러 가지 색의 안료를 묻혀 그리는 전통 문자 그림이다.

전통 민화 '문자도'와 비로 쓴 자국처럼 희끗 희끗하게 붓 자국을 드러낸 글씨체인 '비백서'에서 출발해 독자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의 한 분야다. 대한민국 근·현대시기 전통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근래 산업화로 잊혀져 가는 안타까움에 명맥을 잇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서예로 쓰는 가훈 프로그램'도 열린다. 핵가족화 이후 개인주의적 사회가 만연하고, 가족간의 유대관계조차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목 김만석 혁필화 작품 /은암미술관 제공

체험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전통의 일상화: 가가호호'라는 전시명으로 진행된다. /이나라 기자

광주시립창극단, 내일 '무등산 산군이' 공연

동구 전통문화관 너털마당

광주시립창극단 수시공연 '풍류 in 광주_ 동구-무등산 산군이' 공연이 오는 3일 오후 4시 30분 동구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열린다.

작은창극 '무등산 산군이'는 광주를 대표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다. 흙과 나무, 바위, 물, 바람과 같은 자연을 상징하는 다섯 정령과 과거를 회상하는 남루한 모습의 노인, 그리고 기괴한 모습을 한 산군이가 등장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지구에서 과거 아름답던 시절의 무등산을 회상하던 노인이 아직 늦지 않았다며 마지막 씨앗처럼 남은 무등산 산군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나라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테크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TEL.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